

금호타이어, 노사합의 찬반투표 주목

광주 · 곡성 · 평택공장 투표 진행 ... 정리해고 예정자 690명 가시방석

금호타이어 노조가 9월5일 노사 간에 극적으로 타결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9월11일 오전 9시부터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다.

이 투표는 근무 조별로 진행돼 9월12일 마감될 예정이어서 12일 오후 2시를 전후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사실상 백기투항이 아니냐는 불만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어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협상안 찬반투표가 부결되면 정리해고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회사와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고,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고 예정자로 통보됐던 690명에 대한 해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의 선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높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노조 집행부로서는 조합원의 평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1>